

통권 제 242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12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9  
구경의 법



십선성취  
부처님의 그림



마지막 공부  
자두나무  
부처나무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총지중

## 완전한 부처님에 귀의

인간은 불완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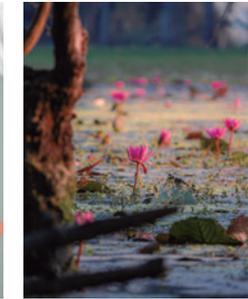
복도 불완전하고 지혜도 불완전하나 부처님만은 완전한 까닭으로 사람이 귀의 하느니라.



마음의 등불 \_ 15  
동지에 보는 봄  
\_ 정동화



살다보면 \_ 36  
그 꽃은 누가  
주었을까  
\_ 이육경



동행 \_ 46  
깨진 물동이가 주는  
교훈  
\_ 탁상달

##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5 마음의 등불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산책
  - 24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7 문화재 해설
  - 30 지장 스님의 향유
  - 36 살다보면
  - 42 씨앗 한 알
  - 46 동행
  - 50 지혜의 뜨락
  - 54 십선성취
  - 58 속담으로 보는 불교
  - 6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66 금쪽상담소
  - 69 마지막 공부
  - 72 서원당 안의 불교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 뗏목 - 화경 정사
  - 동지에 보는 봄 - 정동화
  - 집착 - 임진수
  - 새별오름 별밭이 수련거려요 - 오대혁
  -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법을 구하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 분청사기 모란무늬 자라병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이미지피싱 - 지장 스님
  - 그 꽃은 누가 주었을까 - 이육경
  -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마음 - 법상 스님
  - 깨진 물동이가 주는 교훈 - 탁상달
  - 등골 빼먹는 사람들에게 고함 - 방귀희
  - 부처님의 그림 - 남혜 정사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김성철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자두나무, 부처나무 - 유소림
  - 달집 - 혜광 정사

##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

심리학자이며 상담가인 ‘클라이드 M 네레모어’는 저서 ‘행복에로의 길’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이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프랑스 작가이자 비행사인 ‘생텍쥐페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외롭고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 남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 밭에 사랑이라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꽃을 피우려 합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10월 29일 자>

##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흥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 11화 - 창종 1

진각종 총인이 된 후에도 대성사는 역경과 교리 확립, 밀교 의식의 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밀교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현실 속에서 정법이 구현되고 대승의 원력으로 개인과 세계를 구제할 근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의 진언, 하나의 의식, 하나의 경전 낱말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밀교의 가르침을 진실하고 틀림없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밀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책과 경을 구해오는 일도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기꺼이 맡았다. 밀교 교리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소의경전의 발굴도 이루어졌는데, 『대일

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반야심경』 등이 추가되었다. 경전을 근거로 밀교 수행을 정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행과 교리를 모두 부처님 법에 맞게 갖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이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교도들과 스승들도 밀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이들이 많지 않았다. 수행으로 밀법의 오묘함을 체득한 이들은 있었지만 경전을 해박하게 이해하는 노력은 수행에 대한 열의만큼 깊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

1965년 6월 22일 전국적인 반대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다.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 문화교류의 물꼬를 불교계에서 텃는데, 1968년 해인사에서 열린 한일불교도대회는 대성사의 종교 이력에 큰 전환점이 된다. 대회에 참석한 일본불교 대표들은 밀교를 표방한 신흥종단 진각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교 종단들에 비해 수행과 외형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불교 대표단은 심인당을 방문해 본당을 둘러보고 대성사에게 이런 의문을 남겼다.

“진각종은 대일여래를 교주로 모시면서 진언은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으로 하는 것은 수궁할 면이 있다. 하지만 대일여래의

지권인을 수인으로 수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신밀과 구밀의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밀교의 근본 수행법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근거로 어떤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삼는가를 물었으나 당시에는 딱히 답할 내용이 없었다. 교리 체계가 미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족함이었기 때문이다. 정통 밀교와 유사 밀교를 가늠 짓는 잣대는 분명했다. 대성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일여래<sup>大日如來</sup>를 교주<sup>教主</sup>로 하지 않거나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더라도 삼밀을 경궤<sup>經軌</sup>대로 하지 않고 관법<sup>觀法</sup>과 사종수법<sup>四種修法</sup>이 결합되면 그것을 유사밀교<sup>類似密教</sup>라 한다. 밀교의 삼밀은 본존<sup>本尊</sup>과 그 본존의 진언<sup>眞言</sup>과 그 본존의 결인<sup>結印</sup>이 합치되어야 완전한 삼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합치되지 않고 본존과 진언과 인상<sup>印相</sup>이 각각 다른 불보살의 것을 종합하여 삼밀관행<sup>三密觀行</sup>을 하는 것은 이것이 유사밀교<sup>類似密教</sup>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궤에 어긋나고 삼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까닭이다.”

정통 밀교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대성사의 심중에 무겁게 남았다. 납득하지 못할 일을 지나쳐 넘기지 못하는 성품이라

경전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밀법에 대한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경전 전체를 살폈다.

당시 연구 환경은 지금과 같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만 대장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려대 장경과 신수대장경 전체를 뒤지고 연관되는 내용을 찾으면 공책에 옮겨 적어 일일이 필사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 사본을 만들었다. 그것을 일일이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어려운 작업을 홀로 해야 했다. 종단에는 그럴 인력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뼈저린 노력으로 대성사가 찾아낸 것이 『대승장엄보왕경<sup>大乘莊嚴寶王經</sup>』이니 밀교의 뿌리와 관자재보살의 인연을 밝힌 것이다.

“석가모니불 이전 과거불인 시기불 때 관자재보살이 이미 보왕경을 설하고 또 비사부불 때는 부처님이 인욕선인<sup>忍辱仙人</sup>으로 계실 때 관자재보살로부터 보왕경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밀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무수한 겁의 시간이 지나 부처님이 입멸한 후 800년대에 남천축 철탑 속에서 십만 송의 밀교 경궤가 출현하여 대일여래<sup>大日如來</sup>, 금강수보살<sup>金剛手菩薩</sup>, 금강지<sup>金剛智</sup>, 선무의<sup>善無畏</sup> 등에 의하여 혜과<sup>惠果</sup>에게 전하고, 혜과로부터 신라에서 혜일<sup>惠日</sup>과 불가사의<sup>不可思議</sup>가 그 법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공해<sup>空海</sup>가 법을 받았으나, 공해보다 혜일이 먼저 법을 받았으니 법형<sup>法刑</sup>이 되는 것이다.”

당시 밀교 경전 대부분을 살피며 대성사는 밀교의 근본과 수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신라 이후 흩어진 밀교의 맥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이란 점은 분명했다.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가려면 난관이 있고 당장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진각종과 맺은 인연을 마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을 찾아 육자진언의 연유를 밝힌 후 대성사가 몰입한 것은 밀교 신행 체계의 확립이다. 남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자신부터 납득할 수 있어야 했기에 치열한 탐구와 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경에서 설해지는 “관자재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무량겁 전, 비바시불 때부터이다.”는 구절을 통해 관자재보살이 경전상 모든 관음의 원초이며 근본이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관세음보살이 인간세계를 교화하기 위해 현신하는 분이 준제관음보살이며, 준제는 청정을 뜻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수행을 위해서는 준제관음진언인 ‘나무 샷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단야타 움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를 염송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것이 소위 준제관음



197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불교종단대표컨퍼런스에서 맨 오른쪽 대성사

법인데, 이는 현대 한국밀교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준제진언은 모든 진언을 두루 통하고 있으므로 진언 중에 진언으로 바다와 같은 진언이며, 불모다라니라 하는 연유이다.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에는 준제진언이 “일체 재앙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신속히 성취하도록 하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업의 과보 속에서도 누구나 받아 외울 수 있으니 중생을 위한 진언이고, 여의주와 같으니 모든 진언을 염송할 수 없다면 준제진언만이라도 염하라는 것이 예부터 전하는 가르침이었다. 진언의 위력뿐 아니라 깊이 있는 염송은 주변을 청정하게 하고 진언자를

청정하게 하며 어떤 장애도 넘게 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래되는 내용이다. 대성사는 준제진언의 수행법을 찾아낸 순간 한편 환희심을 얻었고 한편 앞날의 장애를 알 수 있었다. 진실과 진리는 모두를 위한 일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법이다.

세상에 순응하는 자는 진실을 덮어야 하는 경우가 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돌아가는 일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밀교행자이며 관세음보살의 뜻으로 일체를 구하겠다는 원을 세운 이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 앞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성사는 준제관음법을 펼치면서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의 오해와 장애를 알고 있었다. 허나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세상을 무명으로 이끈다면 그 또한 밀교행자의 길이 아님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대성사는 1971년 이의 시행을 진각종 원의회와 종의회에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의뢰를 보완해야 한데 대다수의 승직자와 교도들이 공감했지만 당장 준제관음법의 취지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당 대종사 재세기 시행했던 수행법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대두되면서 종단은 흔들렸다.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

으며, 새로움을 내세워 옛 자취를 지우려 한다는 주장과 곡해가 빚발쳤다. 오해의 뿌리에는 대성사가 회당 대종사의 흔적을 지우고 종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이 있었다. 회당 대종사의 권속을 중심으로 일부 스승들의 항의가 닦혔다. 소위 준제파동이다.

## 뗏목

###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부처님께서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집착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공의 실천이며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진리조차도 열반에 이른 다음에는 버려야 할 것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함경』 가운데의 『별유경(別有經)』이라는 경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만약 뗏목의 비유를 이해한다면, 그때는 선법도 곧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선법이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뗏목의 비유라는 것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내려놓고 가야지 둘러메고 가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뗏목 삼아 열반의 저 언덕에 다다른 뒤에는 그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인데 진리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든가 선악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여 싫어하고 자

기의 신념만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독선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  
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 혹은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나  
쁜 것이라고 고집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공격한다면 또 다른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행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 자기만 잘 지키면 될 것  
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흔히 율사라는 사람들 중에는 찬바람이 뽕뽕 나서 가  
까이 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행이라는  
기준에 얽매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이 해탈에 이르기 위한方便인 것을 잊어버리고 계행이라는 그  
것 자체에 얽매어 자신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  
롭히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중도를 놓쳐버린다는 것을 말  
해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선이나 진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을 악을 용인하  
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것을 무집착으로 잘  
못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불교사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의 실천으로써 중도를 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南至風光煖有餘 동짓날 풍광이 따사롭기 그만인데  
幾時堤柳任情舒 제방 버들은 언제나 마음껏 피어날까  
從他積雪三冬遍 삼동의 쌓인 눈이 뿔박하건 말건  
不禁微陽一氣嘘 희미하게 불어오는 양기는 막지 못해  
枝外嫩容如可見 가지 밖 여린 자태 눈에 보일 듯한데  
葉心生意未全疏 잎눈의 싹틀 뜻 전혀 없진 않고말고  
縱然漏洩嘉平節 선달에도 봄소식 새어 나오긴 하겠지만  
猶待春鶯百轉初 봄 피꼬리 한창 울어댈 때를 기다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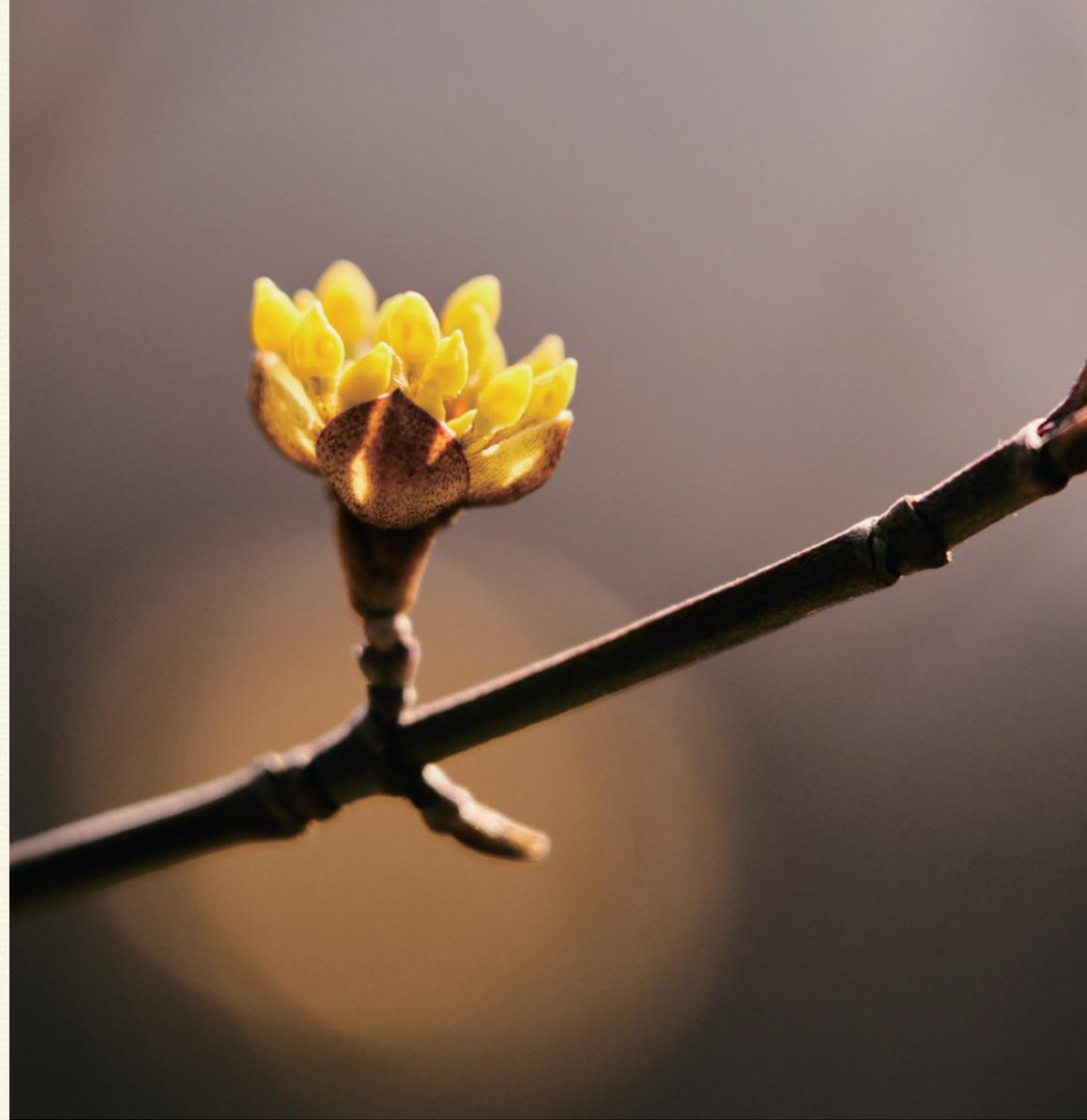
- 정약용(1762~1836), <다산시문집>

동지는 24절기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 속한다. 옛 선현들은 동지 다음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  
어지는 것으로 양의 기운이 움튼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이것  
을 다섯 음효 아래에 하나의 양효가 생긴 주역, 복괘의 형상으  
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양의 궤도가 가장 남쪽으로 내려  
가 있다고 하여 '남지'라고도 불렀다.

이 시의 제목에 11월에 ‘선달 문턱 언덕 풍경 버들눈 피려 하네(岸容待臘將舒柳)’라는 구절을 시제로 내었다는 주가 붙어 있다. 이 구절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소지(小至)>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조는 동짓날이면 문신들에게 이 구절을 시제로 내어 시험을 보이곤 하였다. <일성록> 정조 13년 11월 기사에, 정약용이 초계문신으로서 이 시제에 답하여 이 시를 지어 수석을 차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시인은 동짓날 제방의 버들을 통해, 지금은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오래지 않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버들이 움을 틔우리라는 희망을 보였다. 눈이 두껍게 쌓인 겨울, 가장 음기가 강한 그 순간이 바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싹트는 순간이요, 미약하지만 그 기운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는 이미 여린 자태를 품고 있고, 잎눈이 돋아나올 뜻도 없을 리가 없다. 선달이면 이미 가지에는 봄빛이 새어 나오겠지만, 봄 피꼬리 울어대는 완전한 봄을 기다려 활짝 피어 날리는 버들 꽃을 만끽하리라 하였다.

동지는 음기가 온통 가득한 세상에서 미약하게나마 새로 양기가 싹트는 날이다. 아무리 추위가 혹독하더라도 한 걸음씩 어김없이 다가오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이번 겨울 추위는



참으로 혹독하고 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은 더욱 찬란할 것 같다. 그 봄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일테니.

### 인간의 숙명적 슬픔

앞서 괴로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괴로움과 후천적인 괴로움으로 나뉘는 괴로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건강이나 환경과 같은 태생적인 괴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어린 시절의 괴로움은 어른이 된 이후의 괴로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금세 웃으며 또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한다.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고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든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에 그늘이 없는 천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천진한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잘 묻지 않는다. 설령 괴로움이 생겨도 툭툭 털어내고 괴로운 상태에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어른의 괴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 시기부터 열등감과 우울감, 시기와 질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지 등으로 괴로움이

밀려오게 된다. 청소년기를 벗어나는 시기에는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게 되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쾌락과 절망을 오가는 사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게 된다. 마음의 어둠은 어떤 계기와 만날 때 괴로움으로 성장한다. 이렇듯 하나하나 쌓아온 삶이나 자신의 편견과 아집이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방해한다.

아이들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은 욕망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쌓아온 번뇌도 없다.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어하는 그대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처럼 좋아하니까 이래야 하고 싫어하니까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집<sup>執</sup>이라고 한다. ‘집’이란 ‘모으다’라는 뜻이다. 이 ‘집’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집착<sup>執著</sup>’이다. 즉 ‘모으기는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괴로움이 발생하면 괴로움을 느끼는 자와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인 '나'가 존재하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객체인 '대상'이 존재한다. 즉 '나'는 외로움의 주체이면서 객체이기도 한 것이다. 괴로움의 대상은 다시 '나'와 '나 이외의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나'는 감각, 감정, 생각으로 볼 수 있고, '나 이외의 것'은 물질과 비물질로 또 나뉜다. 물질은 사람과 사물, 비물질은 명예나 지위 같은 관념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집착은 감각, 감정, 생각, 물질, 비물질 다섯 가지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뜻한다. 이러한 집착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포화상태가 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가기 시작한다. 썩어가는 괴로움의 대상들은 본체인 '나'를 침범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대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욕망에 대한 집착을 '갈애(渴愛)'라고 표현한다. 이에 명상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동시에 욕망에 대한 갈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 새별오름 별밭이 수런거려요

###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시집<시의 끈을 풀다>

가슴을 도려낸 여자와 오른 오름  
풍성한 가을 새들  
억세게 버터온 생을 덮은 젖무덤

영성한 그리고 귀귀한 생들  
비죽비죽 솟아오른 오름에 올라  
별밭 가득한 밤을 기다려 보자대요

여자는 하얀 걸음을 걸어요  
붉은 보랏빛 꽃나비나물 위로  
하늬바람이 되어 나풀거려요

사는 게 눈코 뜰 새 없는 여자예요  
수선화 피면 수선스레 새살거리고  
굴꽃과 속닥거리느라  
생을 숨 쉴 새 없이 꼬박 지새웠대네요

오름이 저물어 별들이 뜨려니  
여자는 하얗게 서걱거려요



©Photo by 오대혁

##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법을 구하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부처님, 또 과거 한량없이 오래된 겁에 이 염부제에 부라만데 바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담마감이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그는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얻고자 사방으로 구하다가 얻지 못하여 수심에 잠겨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석천왕이 태자의 지성에 감동하여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누가 정법을 듣고자 하는가? 내가 마땅히 일러주리라.’

태자가 곧 맞아들여 법을 청할 때 바라문은 다시 말했습니다.

‘정법을 듣고 배우기란 심히 어려운데 어찌 쉽게 배우고자 하는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큰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몸을 던져 공양한다면 내가 법을 말해주리라.’

태자가 곧 불구덩이를 만들고 몸을 던지려 할 때 부왕과 모후를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울먹이며 태자를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나간 무량수겁에 수없이 몸을 버렸으나 일찍이 착한 마음으로 법을 위하여 버린 적은 없었소. 천상·인간과 지옥·축생에서 그저 쓸데없는 몸만 위하다가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을 뿐인데 이제 다행히 이 더러운 몸을 법을 위하여 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처음이며 또 기쁜 일ियो. 모든 대중은 나의 마음을 막지 마오.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불도를 구함ियो. 뒤에 성불하면 먼저 제도하여 줄 것이오.’

그 때 대중은 슬픔에 빠져서 태자의 행동을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태자는 불구덩이 위에 서서 바라문에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대사는 나를 위하여 정법을 일러주십시오. 나의 몸이 불속에 들어가면 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문은 곧 계송을 설했습니다.

“항상 자비한 마음을 내고, 화내고 해칠 생각 버리고, 큰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눈물 흘리며 남의 좋은 일 기뻐하기를 나의 경사와 같이 여겨라. 도의 뜻으로 중생 구하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태자는 법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곧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고 소낙비가 내리며 불꽃이 연꽃으로

변하더니 태자는 위엄 있게 연화대<sup>蓮花臺</sup>에 앉아 있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 그때의 부라만데바 왕은 오늘의 정반왕이요, 담마감  
태자는 오늘의 부처님이십니다.”

『현우경, 賢愚經』 불교충전 발췌

납작한 형태, 강렬한 색채와 화려한 무늬로 이국적인 느낌을 주  
는 분청사기 병입니다. 분청사기는 조선 15~16세기에 제작된 자  
기의 한 종류로 청자, 백자와는 다른 독특한 미감으로 눈길을 끄니  
다. 이 작품은 분청사기 자라병으로서는 드문 완형의 예로 독특한  
기형, 과감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국보의 위엄을 당당하게 뽐내  
고 있습니다.

### 자라를 닮은 멋스러운 병

자라병이라는 이름은 명칭 그대로 자라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납작하고 둥근 몸체에 짧은 주둥이가 달려 있는데, 마치  
자라가 엎드려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보통 ‘병’은 가늘고 긴  
목에 양감이 있는 몸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자라병은  
높이보다 너비가 넓고 목도 짧아 독특한 미감을 뽐냅니다. 또한 병  
전체에 피어 있는 모란꽃과 바탕의 검은 안료가 대비를 이루어 이  
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라처럼 투박하고 무심히 만든 병 같지만 단면 조사 결과 그 두  
께가 얇아 정교한 제작기술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쓰

인 기법은 전라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박지기법으로, 백토로 분장한 뒤 무늬를 뺀 나머지 부분을 긁어내어 특유의 어두운 바탕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무늬와 바탕의 대조가 뚜렷한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 철화 안료로 칠하여 그 대비는 더욱 강렬합니다. 모란은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마치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표현력과 독특한 감각은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분청사기만의 멋을 한껏 발산합니다.

### 분청사기의 멋

분청사기는 회색의 바탕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고운 백토로 분장을 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자기입니다. 고려 말에 상감청자가 쇠락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했지만, 고려청자와는 다른 새로운 무늬와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자유분방한 매력을 뽐냅니다. 분청사기의 표면을 장식하는 방법은 상감분청, 인화분청, 박지분청, 선각분청, 철화분청, 귀얄분청, 분장분청(덤병분청)으로 나뉩니다. 또한 다양한 응용과 파격적인 무늬 배치가 돋보이며, 강한 지역성을 드러냅니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작가로 유명한 혜곡



분청사기 모란무늬 자라병, 조선 15세기, 높이 9.4cm, 국보, 덕수6231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서유리) 제공

최순우 선생은 이 자라병을 보고 멋진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무늬가 지닌 이러한 새로운 감각은 마치 20세기 서양의 현대회화 감각과도 공통되는 멋이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박지문 또는 조화문 분청사기의 도안은 곧잘 ‘폴클레’나 ‘마티스’의 소묘와도 비교될 만큼 미술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 이미지피싱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경남 고성 옥천사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재열이라는 한 젊은 남자가 절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굴러내려오는 통나무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임시로 절에 안치되었습니다. 죽어 귀신이 된 진재열은 마을의 자기 집으로 가 길쌈을 하고 있던 누나의 등을 만지며 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며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얼른 바가지에 간단한 음식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부엌칼을 휘두르며 객귀가 있거들랑 얼른 먹고 썩 물러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진재열은 가족들의 인심이 야박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옥천사로 돌아왔습니다.

절로 올라오는 중간에 젊고 예쁜 기생들이 녹색 옷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장구 치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자니 한 젊은 기생이 다가와 옷자락을 잡아끌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순간 놀고 있는 여인들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큰 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

다. 절 근처에 이르자 이번에는 수건을 머리에 동여맨 여러 명의 남자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은 고기를 함께 먹자고 권했으나 진재열은 이를 뿌리치고 절의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었던 진재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진재열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누나도 옆에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묻자 깜짝 놀란 어머니는 네가 어제 나무하다 죽어서 초상 치르려고 와있다고 말합니다. 진재열은 자신이 어제 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멀쩡한 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서 바가지에 밥을 담아 놓았더니 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진재열은 곧이어 기생들이 놀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비단개구리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 근처 남자들이 있던 곳에 가보니 벌들이 집을 짓느라고 분주히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개구리나 벌로 태어날 뻔했다며 크게 안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52년 3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아

무튼 믿거나 말거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는 자신의 인식 수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보입니다. 다 똑같이 보고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 혹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제각각 다르고 봤던 사실 또한 다르게 묘사합니다.

가끔 속가의 어머니를 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스님들은 절에서 주지로 살면서 편하게 대접받고 잘살고 있는데 왜 자리를 못 잡고 돌아다니며 고생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너무 달라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제 눈에는 참 부질없어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 반대입니다.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내는 많은 신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선배나 후배 스님들도 같은 생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 경험과 통찰의 결과들이 축적되어가면서 세상을 보고 아는 기준이 계속 달라져 갑니다. 어떤 답이 정해

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쫓아다니고 움켜쥐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버려야 할 것들, 즉 답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는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성취하고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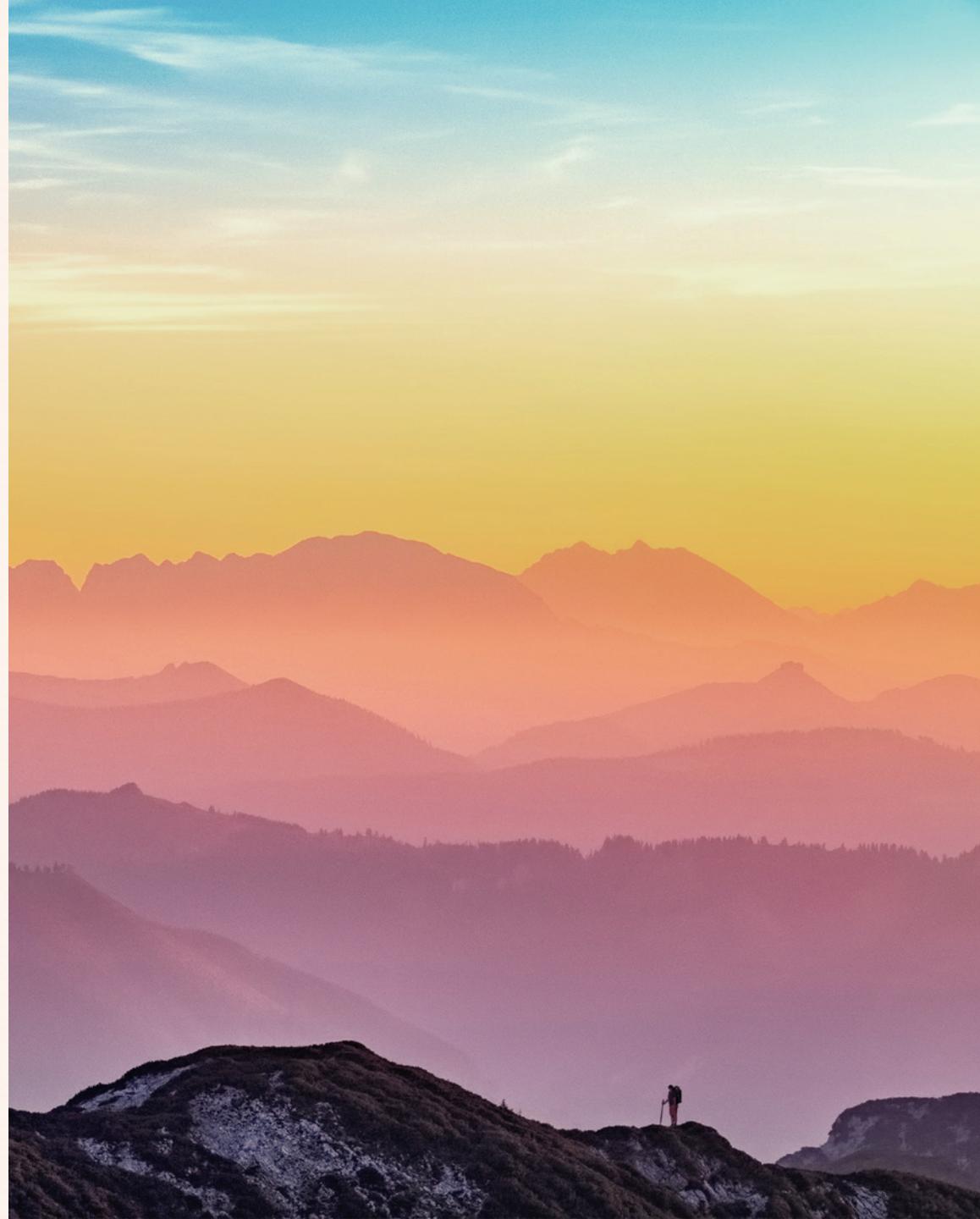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 세상은 각자의 마음이 만든 세상일 것입니다. 스스로 꿈꾸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속고, 또 스스로 붙잡힐 것입니다. 각자의 감양대로 다 자신의 눈에 좋고 아름다워 보이겠지요. 물장구치는 개구리나 집 짓는 벌들도 그들 스스로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어찌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살아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순간들도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든 것입니다. 때론 훗날의 고통이 현재의 즐거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나 결혼, 직업, 사업, 인간관계, 감투, 기타 좋아서 하고 있는 일 등에서 벗어질 수 있습니

다. 아쉽게도 다 겪어보고 알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삶의 모습 또한 개구리와 벌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나 상황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점점 교묘해져서 속는지도 모르게 속기도 합니다.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마도 이미지피싱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켜 삶을 낚아채 가기 때문이지요.

이미지피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늘 따라다닙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미지피싱의 결과입니다. 영화 '식스센스'의 결말은 귀신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요. 보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깜짝 반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반전이 찾아올까요.



## 그 꽃은 누가 주었을까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생일을 며칠 앞둔 아들이 “엄마, 제 생일에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한다. “선물은 무슨! 선물은 널 낳느라고 고생한 엄마한테 네가 줘야지. 엄마는 생일 때마다 외할머니한테 선물해 드렸어. 낳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 말에 아들이 “그런가요?” 하면서 헤헤헤 웃는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제 판에는 응석 한번 부려본 건데 한 방 맞으니(?) 계면쩍은 모양이다. “뭐..., 아들이 준다면야 기꺼이 받겠지만.... 그렇다고 꼭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다.” CF 카피 한 구절을 차용해서 분위기를 슬쩍 농쳐본다.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싱글거리는 아들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엄마의 치마꼬리를 잡고 생일인데 뭐해 줄 거냐며 뺨을 돌던 폐쟁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생일이니 이거 해 달라, 저거 사달라고 졸라대던 철없는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고, 어린 딸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미역국 한 그릇으로 때워야 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애달팠을지. 나이를 먹고 앞가림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일 때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도 사

드리고 좋은 옷에 용돈도 넉넉히 쥐어 드렸지만 그것도 그리 길지는 못했다. 부모님 가신 지 20여 년, 이제 내게 남은 건 그리움뿐이다.

그리고 보니 부모님께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두 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추억을 그 어떤 선물에 비할 수 있으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거기다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남다른 재능도 주셨다. 모두가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도 되돌려 드릴 길이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 후회한다는 말이 달리 생긴 게 아닌 모양이다. 어버이날이나 명절 같은 때 부모님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바야흐로 선물이 봇물을 이루는 연말연시가 돼간다.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차리기도 하고 더러는 미안한 마음을 담기도 한다. 나 어릴 적만 해도 설탕이나 돼지고기 두어 근, 담배 한 보루 정도가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그 또한 시류를 타기 시작해 식용유나 치약 세트로, 과일상자로, 건강식품으로 진일보하더니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모바일 상품권이 대세다.



선물은 다양해지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전달하는 방식도 아주 편리해졌다. 하지만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헛헛해질 때가 많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해서가 아니라 남이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챙기는 선물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다. 상사이기 때문에, 웃어른이라서, 원청이나 발주업체니까... 마치 상납하듯 이번에는 또 무얼 보내야 할까, 알팍한 주머니를 들여다보며 선물의 무게에 눌러 속을 꿰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오래된 일이지는 하지만 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어버이날, 출근해 보니 책상 위에 주먹만 한 꽃바구니에 담긴 양증맞은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흔하디흔한 축하 메시지도 한 줄 없는 화분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직원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봐도 오리무중. 점심시간에 슬쩍 범인(!) 색출 작전에도 나서 봤으나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누굴까, 이 꽃을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군가가 아무도 몰래 갖다 놓은 화분처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순간순간이 참으로 행복했다. 그저 좋아하기만 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꽃에 담긴 의미가 어찌 감사뿐이겠는가. 좀 더 잘해 보라는 귀여운 항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고마운 일, 화분의 주인공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지만 꽤 오랫동안 피고 지는 카네이션을 보면서 나도 꽃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 일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사의 집을 남몰래 찾아 청탁하는 일 따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상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선물, 호의로 포장된 선물 속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뇌물이다. 선물이 무거워지면 뇌물이 된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

도 그에 다름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선물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면 뇌물이다. 받고 나서 잠을 잘 자면 선물이고 못 자면 뇌물이며 언론에 보도돼도 탈이 없으면 선물이고 문제가 생기면 뇌물이라는 말이 달리 생겼겠는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선물은 최고의 보시인 무주상보시<sup>無住相布施</sup>와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라는 말씀이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해 주는 것도 같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자신의 것을 그쳐 내어 주는 무주상보시가 그러하듯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과 존경이 담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그런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고 또 주고도 기꺼이 더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선물이다.

무주상보시의 그것처럼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숭고한 선물도 있다. 지난 10월, 뇌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후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안구를 기증해 일곱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세 자녀의 어머니 조미영(47) 씨,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상으로 3년간 의식불명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오다가 지난 6월 뇌사 상태가 되자 심장, 폐장, 간장, 신장을 또래 아이 4명에게 나누어준 정아영(3) 아기. 지난해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숨진 환자는 2,900여 명, 3시간에 1명꼴로 세상을 떠난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떠난 이들의 선물이야말로 무주상보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건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행복해지는 선물이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표는 안 나지만 생각할수록 가슴이 따뜻해지는 선물,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화분,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누는 장기기증, 수고 많았다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건네는 책 한 권, 격려가 가득 담긴 웃어른의 편지,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며 하청업체에 보내온 발주업체의 감사 선물 같은.... 올 연말연시에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밝은 곳에서 그늘진 곳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선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마음

###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목탁소리' 지도법사

우리는 보통 '내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라곤 합니다. 내 인생에 늘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봐, 욕할까봐 항상 조마조마 하면서 살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지', '버림받으면 어찌지', '이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외도(外道)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별수단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었지요. 이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부처님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도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고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내게도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을 탓합니다. 즉 무언가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없애줄 세상의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내 밖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끊임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던가, 모임을 찾아 나서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려 하던가,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인터넷 게임을 즐기거나, 채팅을 하거나, 하다못해 술자리라도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내 바깥에 있는 대상에서 내 외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내면의 결핍감, 불만족, 가난, 무언가 모를 부족감 같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끊임없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만족은 마음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감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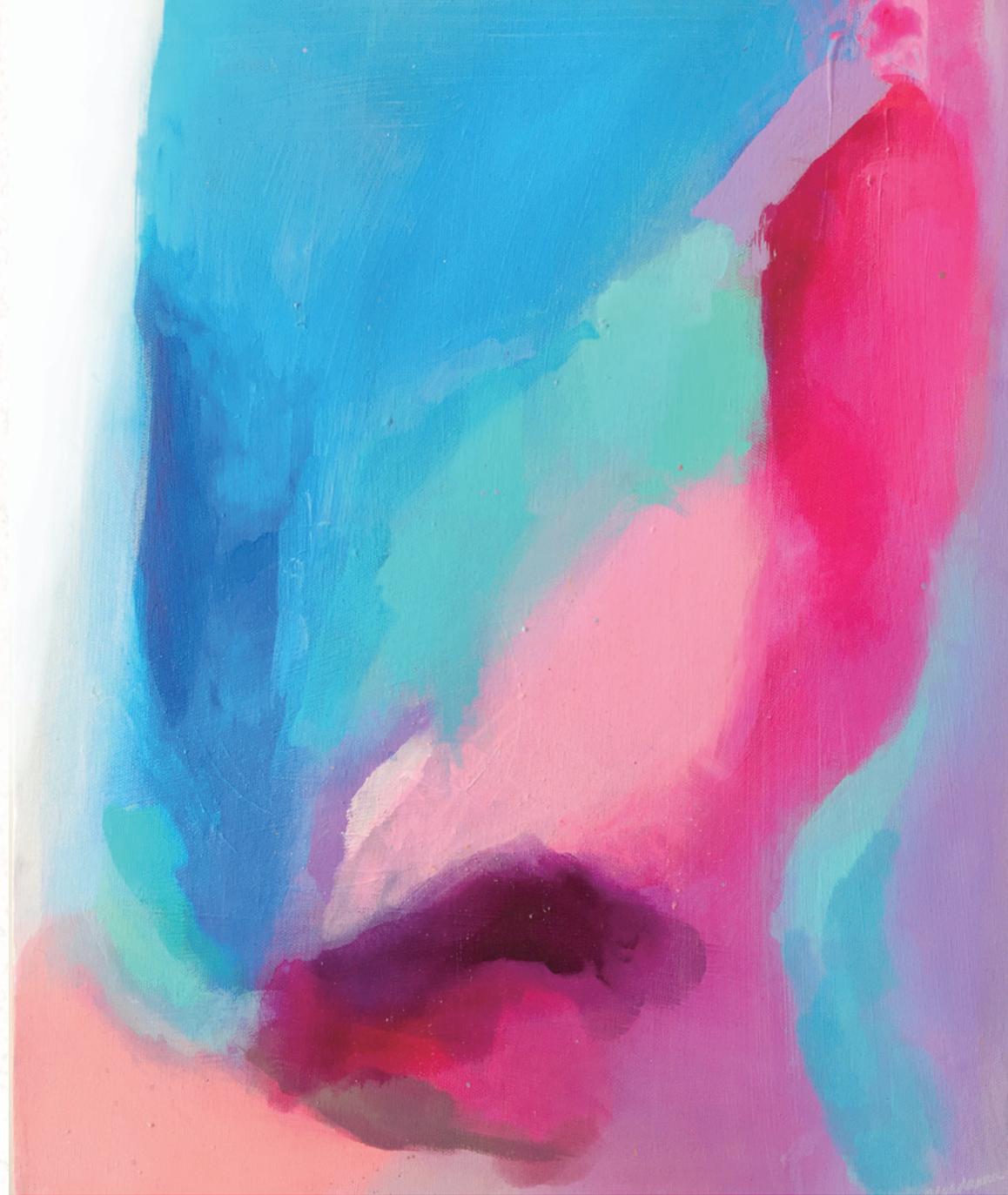
충족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족이라는 결핍감은 내면의 문제이지 외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통은, 그 결핍감은 더욱 더 강렬해지죠. 더욱 더 엄청난 욕망으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은 욕망에 빠지게 만들죠.

이처럼 돈이 없어 괴롭고, 친구가 없어 괴롭고, 성공하지 못해 괴롭다는 등의 이 모든 것은 전부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이라면 외적인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항상 원만 구족하신분이 부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도 부처님처럼 이미 완전하며, 원만구족합니다.

우리의 행복 또한 완전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외부적인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던 것은 완전한 환상일 뿐입니다.

-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Artist Geordanna Cordero

## 깨진 물동이가 주는 교훈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인도의 물 길는 기구 중에 긴 막대기 양 끝에다 물동이를 매달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양반 댁에서 일하는 하인의 물 길는 기구의 물동이에는 우물가에서부터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한쪽 물동이는 온전하게 물이 다 차 있지만, 금이 간 다른 한쪽 물동이에는 물이 절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년 동안이나 물 길는 하인은 언제나 한 동이 반 정도밖에 물을 길어 오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깨진 물동이는 자기가 절반 밖에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 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왜? 무슨 용서지?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말이지?” 물 길는 하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양동이 틈새로 물이 새버려서 언제나 물을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결함 때문에 당신의 힘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 버린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미안해할 수밖에요.”라고 금이 간 물동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물 길는 하인은 깨진 물동이를 불쌍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동이야. 물을 길어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오는 길에 길가에 핀 아름답고 예쁜 꽃을 본 적이 있지? 우리가 왔던 그 길에서도, 네가 걸려 있는 벽 쪽 옆길에도 향기 나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지? 나는 너의 결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네가 물을 흘리는 쪽 길가에다 예쁜 꽃씨를 심었단다. 매일 우리가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서 주인집으로 가는 동안 네가 그 꽃에다 열심히 물을 준 셈이 되었지.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주인의 테이블 위에다 장식했으니, 결국 주인집이 밝고 아름다운 집이 된 것은 다 네 덕분이 아니겠니?”

우리는 이 물 길어 나르는 하인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많은 결점을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깨진 물동이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수나 오류는 아무 보잘 것도 없고 의미 없으며 존재조차도 없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하찮은 미물들도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한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지닌 그 결함이 때로는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며 그 결함조차도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흥미롭게 하거나 또 어떨 땐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온갖 천태만상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결함을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결점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함과 결함을 알고 칭찬과 격려, 존중과 배려, 나눔과 감사, 협력과 소통의 인연이 함께하는 12월을 기대해 봅니다.

## 등골 빼먹는 사람들에게 고함

###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한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 삶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등골 빼먹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다보니 어느새 한해 끝자락에 와있는 것 아닐까 싶다. 올 한해를 정리하는 뜻에서 2023년 구상순대문학상을 수상한 허상욱 시인의 수상작 ‘일당 빼먹기’를 함께 감상해 보고자 한다.

대전 유성 먹자골목 일당뼈다귀해장국집/ 장님들 마주 앉아/  
 남남찹찹 뺏골 빼먹고 있다/ 극돌기 횡돌기 관절돌기 사이사  
 이/ 은근슬쩍 숨은 속살을 찾아/ 날카로운 이빨 여린 혀 날름거  
 린다/ 처음 맵고 뜨거운 그 덩어리의 손길은 엉거주춤 소극적  
 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남의 등살 주물러 먹고 사는 시원한 손  
 이기에/ 골 빼 먹는다는 건 늘 신나고 재밌는 일/ 주머니 속에  
 는 척추 기립근 대둔근 주물러 주고받은 안마 일당 십여만 원  
 이 있고/ 유유상종 침묵이란 게 있기에/ 잠시 한때나마 이토록  
 끈끈한 식욕으로 다가온다/ 치명적 뼈와 골의 사이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기에/ 거기 깊숙이 박힌 살들은 쉽사리 빠져나오지

않는다/ 일당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것이다/ 돼지등뼈 수북한 뼈  
 통엔 얼씬도 않는 공허한 눈길들/ 뿌연게 서러가는 김 너머/ 그  
 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시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도 시인은 시각장애인이며 직  
 업이 안마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의 서사는  
 대전 유성 먹자골목에 자리한 맛집인 ‘일당 뼈다귀해장국집’에  
 서 안마사 동료들과 함께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돼지 뼈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살을 빼먹는 장면이  
 재미있어서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지만 시를 다 읽고 나자 시  
 인의 마음이 느껴져 눈가가 시큰해졌다.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일당을 받고 고객의 등살 뼈속 깊숙이  
 박힌 피곤을 파내야 한다. 피곤을 파내는 사람이나 뼈 속에 피  
 곤이 박힌 사람이나 고단한 인생이다. 하지만 고객은 시각장애  
 안마사를 보고 ‘어쩌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나’ 싶은 연민이  
 생겼을테고, 시각장애 안마사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등살을  
 주무르며 ‘힘든 일을 하는구나’ 싶은 연민이 있었지만 서로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인은 ‘유유상종 침묵’이라고 표  
 현하였다.



하지만 식당 상호에 '일당'이 붙어있듯이 서민들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 있기에 식욕을 채우고 있다. 이 일당이라도 꾸준히 있기를 바라고 있기에 그 식욕이 끈끈하다고 한 것이다.

시인은 자신과 고객 사이의 침묵 속에서 나는 대화를 우리 사회를 향해 힘껏 던지는 패러독스(paradox)도 잊지 않았다.

‘꿀 빼 먹는다는 건 늘 신나고 재밌는 일’이라고 한방 날린 것이다. 비열한 강자들이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회 현상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에서 그들은 살과 골이 빠져버린 돼지등뼈를 나타내지만 사실상 그것은 포장일 뿐, 시인은 우리 사회에 나쁜 강자들에게 사기당한 패배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식사기, 묻지마 살인, 성착취, 학폭, 직장내 괴롭힘, 갑질 등, 약자의 약함을 이용해서 등골을 빼먹는 악랄하고 비열한 강자에게 허상옥 시인의 2023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작 ‘일당 빼먹기’가 사기를 멈추는 경고장이 되기를 바란다.

악한 사람들 등골 빼먹는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렇게 살면 괴물이다. 괴물은 무섭게 생겨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다. 괴물은 결코 사람과 살 수가 없기에 격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면 인간다워져야 한다. 그 인간다움은 자비심에서 생긴다.

## 부처님의 그림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나의 대학교 3학년 시절은 마음이 맞는 대학동기들과 후배들 7명이 스터디를 결성해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였다. 그 당시 나의 집은 부산 자석사 옆인 광안동이라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 이상의 거리였기에, 학교 가까이 살던 후배가 아침 일찍 도서관 자리를 잡아주곤 했었다.

총지중 자석사는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절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 서면에서 광안동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자석사에는 지하수 물을 사용했었는데 나는 자주 물을 뜨러 다녔었다.

그렇게 대학 3학년 시절도 막바지에 다다라 10월 중간고사 시험기간 때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감기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몸은 계속 피곤해졌고 몸무게는 날로 줄어갔다. 그러나 다음해 2월 달에 중요한 국가시험이 있어 공부를 멈출 수가 없었다.

12월 기말고사가 끝나갈 무렵 몸은 더욱 쇠약해져갔다. 옆에



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보다 못해 나를 학교 옆에 있던 대학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폐결핵이었다. 병원에서는 7개월 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밥 잘 먹고 잘 쉬면 나올 수

있는 병이라고 했다. 담당의사는 완치를 위해 휴학을 권유했고, 어머니에게 몸이 약한 상태며 독한 약을 먹어야 하니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개고기라도 사 먹여야 한다고 했다.

자석사에 다니시던 어머니는 차마 개고기를 먹일 수가 없었던지 새벽녘 이슬 맞은 밭에서 달팽이를 잡아 몸에 좋은 것이니 먹으라고 하셨다. 비린내가 심해 구토를 유발하는 맛이었지만 코를 막고 억지로 먹었다.

그렇게 1년의 휴학기간 동안 같이 스터디를 하던 대학동기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다. 친구들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마다 내 자신은 더욱 처량해졌다.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나도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항상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물이 생기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사회생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세상은 나를 내버려두질 않았다. 이유 없이 괴롭히는 직장상사가 있었다. 그냥 괴롭혔다. 직장 내에서는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밤낮으로 전화해 괴롭혔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다. 집밖에 나가기도 싫었다.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며 1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어머니께서는 너는 절밥을 먹어야 할 팔자라고 하시며 총지종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셨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자석사에서 살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총지종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속적인 권유에 이런저런 불교서적을 뒤적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어머니를 믿고 총지종에 들어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곧장 자석사를 찾아가 어머니에게 총지종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어느덧 총지종에 입교한지 20년이 되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나를 제자로 받기위해 어릴 때부터 시련도 많이 주시고, 시험도 많이 하신걸 보면 부처님은 그림을 참 잘 그리는 분이신 것 같다. 그렇게 오늘날의 나는 힘들고 괴로웠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뒤로한 채 총지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량,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재가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응보의 교리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착하게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인과응보를 설명하면서, 이를 한문숙어로 ‘선인선과<sup>善因善果</sup> 악인악과<sup>惡因惡果</sup>’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인과응보는 ‘선인락과<sup>善因樂果</sup> 악인고과<sup>惡因苦果</sup>’라고 말해야 옳다.

그런데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점에서 보듯이 우리말에서는 ‘좋은(good)’이나 ‘나쁜(bad)’이라는 형용사를, ‘하는 것’인 행위와 ‘받는 것’인 감수<sup>感受</sup> 모두에 대해서 사용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한자의 ‘선<sup>善</sup>’이 ‘좋은’으로 번역 가능하기에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를 선인선과와 동일시하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착하게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표

현하는 인과는 ‘선인락과 악인고과’의 인과로, 좋은 행동인 선행과 나쁜 행동인 악행이, 각각 좋은 일인 낙의 감수와 나쁜 일인 고의 감수로 다르게 익어서 나타나는 ‘이숙인<sup>異熟因</sup>-이숙과<sup>異熟果</sup>’의 인과응보이다.

모든 법은 그 성격에 따라 선성, 악성, 무기성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선성도 악성도 아닌 것이 무기성이다. 선이나 악은 행하는 것이고, 고와 낙은 느끼는 것으로 그 질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나서 오는 고통은 선하거나 악한 것일 수 없다. 또 추울 때 따스한 방의 포근한 안락 역시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일 수 없다. 이렇게 고통이나 안락과 같은 법이 무기성의 법이다. 따라서 ‘선인락과 악인고과’에서 원인과 결과는 ‘다르게 익음(이숙)’을 의미하는 이숙인-이숙과의 관계인 것이다.

이와 달리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내생에도 그 성향이 계속 착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내생에도 그 성향이 계속 악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동류인<sup>同類因</sup>-동류과<sup>等流果</sup>’적인 인과의 일종이다. 동류인-동류과란 ‘같은(동) 종류(류)의 원인(인)이 같은(등) 흐름(류)의 과보(과)를 낸다.’는 뜻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에서 ‘씨앗도 콩이지만 열매 역시 콩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이는 동류인-동류과에 대한 비유다. 그러나 ‘콩을 씨앗으로 심었는데, 그 결과로서 콩씨가 나왔다’는 의미로 이해할 경우 이는 이숙인-이숙과에 대한 비유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緣起法에 있다. 연기란 ‘의존적 발생’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인을 여섯으로 결과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육인오과설六因五果說이라고 부른다. ‘이숙인-이숙과’나 ‘동류인-동류과’의 이론 모두 육인오과설에서 유래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알던 인과응보와 연기의 법칙을, 우리는 이런 아비달마 교학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게 된다.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뽀로로와 친구들①



뽀로로와 친구들②

## PART 2.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 I. 뽀로로와 친구들

II. 어린왕자

III. 토닥토닥 꼬모

IV. 아기공룡 둘리

V. 뽀까와 가루

VI. 개구리 왕눈이

VII. 로보카 폴리

VIII. 로봇 태권V

##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Animation and Characters)

애니메이션은 흔히 만화영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식의 영화다. 예전에는 어린이 대상의 오락물로 생각해 하위문화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부가산업의 확대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세련되고 깜찍해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왕자



도도



꼬모



우바



토닥토닥 꼬모



아기공룡 둘리



-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바쁘다.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옷을 입고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 주면 더 바랄 게 없지만 내 맘 같지 않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옷도 입혀주길 바라고 신발도 신겨주길 기다리고만 있다.

### 원인

- 1) 조부모, 또는 부모의 과잉보호로 평소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2)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 부족으로 소근육 힘이 부족하여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 3) 혼자 입기 힘든 옷이거나 스스로 신기 힘든 신발로 인해 아예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

## 지도방법

- 1) 아이 혼자 입고 벗고, 신고 벗기 편한 것을 제공한다.
  - 2) 부모의 답답한 마음을 아이가 느끼지 않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기다려준다.
- ※ 아이들은 부모가 믿는 만큼 해낼 수 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 칭찬해준다.

## 자두나무, 부처나무

###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자두나무도 별거송이가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열매도 달리지 않고 꽃마저 볼품없게 되었다. 잘라야 하나 망설이다가 동네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 열매 달리는 나무는 잘 먹어야 돼요. 봄, 가을로 퇴비 잘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러면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달려요.

아, 그것이 자두나무인걸. 아저씨 말은 자두나무는 자두가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두가 달리지 않는 것은 관리 부족이라는 진단이다.

그렇다. 자두가 열리는 것은 그 속에 자두가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없다면 애당초 자두가 어찌 달릴 것이냐. 그리고 또한 아무리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관리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짙하게 맑은 초겨울 하늘을 올려다본다. 조선의 푸른 하늘 참으로 아름답다. 무덤 위 붉은 흙에 바늘귀 구멍 내어 훑쳐두고 보고픈 조선의 푸른 하늘.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정말 그랬다. 죽는다 해도 아쉬울 것은 그 무엇도 없는데 푸른 하늘은 보

고 싶었다. 어째서 그랬을까. 그 까닭을 새삼 생각해본다.

모든 사람들이 푸른 하늘을, 창공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푸른 하늘, 한없는 푸르름. 한<sup>한</sup>이 없는 무한<sup>無限</sup>의 그 푸르름. '나'라는 표박지를 움켜쥐고 '나'라는 유한의 틀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한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떤 규정, 그 어떤 속박, 그 어떤 걸림도 없는 무한을, 무한 해탈을!

씻다르타 태자가 부처를 이루고 해탈한 것은 사람이 본래 부처를 맺고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부처 나무, 해탈 나무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다면야 씻다르타 태자인들 부처 열매를, 해탈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어찌 맺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속의 가능성이, 미처 꽃피지 못한 가능성이 아우성치며 우리로 하여금 저 푸른 하늘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 무덤 속에서도 저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진정성 자체만으로도 탐진치<sup>貪瞋癡</sup>의 기세가 꺾인다.”는 스승의 말씀이 떠오른다.

자두나무에 귀를 기울인다. 외침이 들린다.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고 싶어요. 꽃과 열매로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요. 모든 존재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존재들은 연기적이기에 자신의 행복으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프락의 나무들에게 퇴비를 듬뿍 주어야겠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이 마음으로 나도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두 손 모아 절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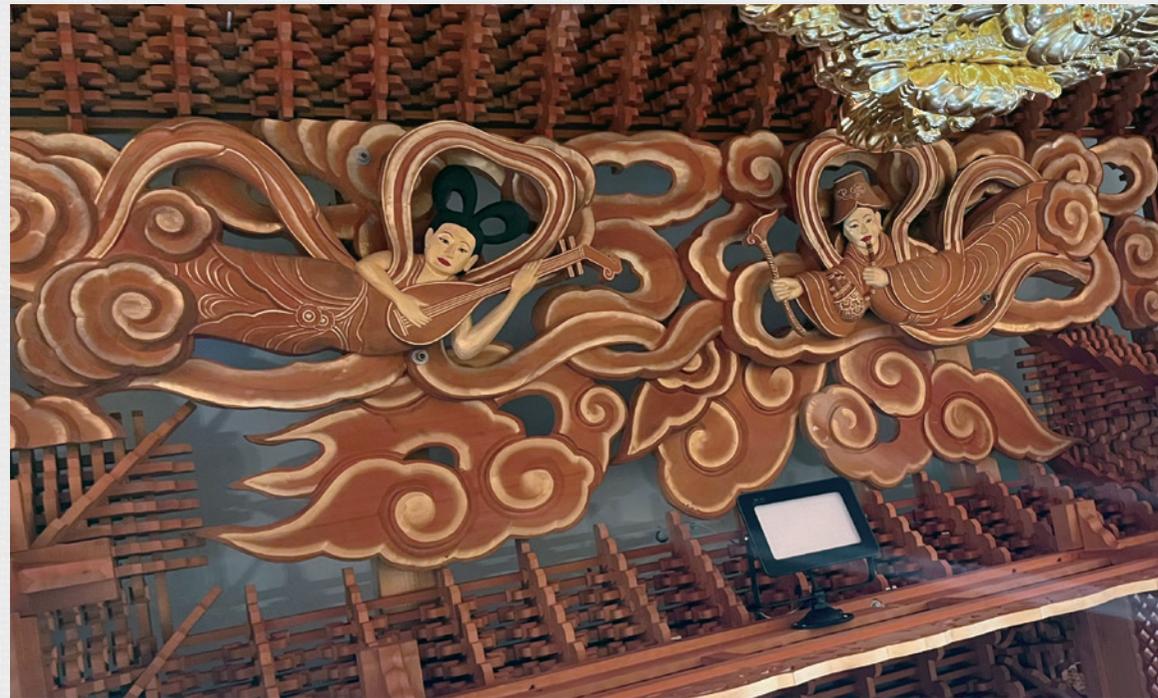
## 닫집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서원당(법당)의 정중앙에는 총지종 본존 '옴마니반메훬'이 있습니다. 그 본존위에 기와지붕처럼 생긴 모양을 닫집이라고 하는데, 전통사찰에서는 본존인 불상위에서, 궁궐에서는 어좌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닫집은 본존이나 불상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천장에 설치해놓은 지붕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천개<sup>天蓋</sup> 또는 보개<sup>寶蓋</sup>라고도 합니다. 또한 햇빛을 가리는 양산 같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양산은 과거 부처님이 야외로 나가실 때나 법회 시에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는데 사용했었으며, 인도의 풍습 중에 귀인이나 신분이 높은 분들이 외출할 때 강한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쓰였던 것을 서원당(법당)의 본존이나 불상위에 가리개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산의 상부를 장엄하는 것으로 상징되며, 화려한 불국정토 궁전을 가리키는 적멸궁, 칠보궁 등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지사 닫집과 닫집 내부 건달바(선녀)

단집의 종류에는 보궁형(사각기둥을 쌓아 올리는 건물처럼 지붕을 화려하게 만든 것)과 보개형(천장 일부를 감실처럼 둥글게 속으로 밀어 넣은 것), 운궁형(천장에 구름의 운판, 봉황 등 길상 상징물만으로 구조한 것)으로 나뉩니다.

다른 전통사찰의 단집 내부는 봉황, 용 구름등이 그려져 있는데, 총지사의 단집은 보궁형으로 단집 위 천장에는 구름을 탄 선녀들이 피리를 불고 날아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녀들은 '건달바'라 부르며, 불법을 수호하는 8법신 중의 하나입니다. 음악의 신으로 향을 먹고 살며 음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 빈둥 노는 사람을 뜻하는 '건달'의 유래가 '건달바'라는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 지난 호 정답

①㉓ 입	현	㉒ 군	주	㉑ 제		②㉔ 무	아	㉕ 지	경
동		계		③ 재	활	용		그	
	④ 생	일		난		⑤ 지	장	재	일
㉖ 시		⑥ 학	㉗ 기		⑦㉘ 보	물		그	
바			⑧ 사	투	리		㉙ 부		㉚ 역
⑨ 견	㉛ 강	부	회		⑩ 수	증	전		지
	강		⑪ 생	㉜ 사			⑫ 여	행	사
	술			⑬ 전	㉝ 국	체	전		지
⑭㉞ 소	래	포	# 구		기				
망			름		⑮ 원	정	대	성	사

#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②	㉑		㉔		㉕
							③		
		④		㉖					
	⑤㉗					⑥㉘		㉙	
⑦			⑧						
⑨㉚		㉛							
				㉜		⑩㉝			㉞
				⑪					
⑫						⑬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가로 열쇠

- ① 양력 12월 24일, 정통밀교 총지종이 입교개종(立教開宗)한 날
- ② 문학, 예술 분야에서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여운을 남기는 기법
- ③ 신라 시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연회를 행하던 곳으로 경북 경주에 있는 사적 제1호
- ④ 명당의 조건 중 하나로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는 지세를 갖춘 터
- ⑤ 자극적인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향신료의 한 종류
- ⑥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의 본질과 사상 체계 역사 등을 전공하는 학부
- ⑦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⑧ 자동차나 보행자의 존재를 감지하여 유동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
- ⑨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고 솔직함을 뜻하는 말
- ⑩ 불교에서 부처가 고통 속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게 하는 것
- ⑪ 지구의 가장 거대한 다섯 바다(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 ⑫ 공적인 일, 사적인 일로 거름이 없을 만큼 바쁨을 뜻하는 말
- ⑬ 세상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세로 열쇠

- ㉓ 창호에 붙이는 백색의 질긴 종이
- ㉒ 소금에 절인 배추
- ㉑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
- ㉔ 관중과 포숙의 사귀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 ㉕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가는 사람, 안주인
- ㉖ 더할 나위 없이 후회스러움을 뜻하는 말
- ㉗ 그 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 ㉘ 무척 화난 상태에서 내리는 호되고 급한 명령
- ㉙ 학교 밖에서도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㉚ 총지종에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매년 양력 11월 6일부터 49일간 정진하는 참회불공
- ㉛ 탄산과 나트륨(Na)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
- ㉜ 점진적인 과정 없이 단번에 깨닫는 것을 이르는 불교용어
- ㉝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로 음력 9월 9일, 9가 두 번 겹치는 날
- ㉞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 유통의 중간적 기능을 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어김없이 돌아온 겨울  
그리고 12월,  
언제나처럼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지난날의 여정을 그려봅니다.

꽃향기 가득했던 봄날,  
내 마음에는 꽃이 피었던가.  
무더웠던 여름날에는  
우거진 녹음 안에서 잠시 쉬어 있었다.  
유독 짧았던 찰나의 가을,  
공허함이 가득했던 날들은 아니었을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내 안 깊숙이 무엇인가  
소복소복 담겨있었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아닌  
따뜻한 배려와 이해, 온전한 감사였습니다.

"내 사랑, 별이 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난 만족할테니  
그저 내게 진실한 사랑과 이해를 줘요  
난 당신 그대로를 사랑해요"

The Daughters of Eve의 곡 Hey Lover로  
2023년 마지막 위드다르마를 마무리합니다.  
올해의 시간도 여기,  
소중히 담아둡니다.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자선화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채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52(2023)년 12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12월호

---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멀하지 않고  
현실은 전변하나 진리는 영원하다

---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